

부산YWCA의 생활협동운동 이야기

윤 신 옥(부산YWCA생협부장)

1. 사업기간: 1987년-2004년 현재

2. 사업내용

제28회 YWCA 전국대회에서 환경보전운동이 사업중점으로 채택되면서 부산YWCA는 먹을거리와 그 생산의 기초가 되는 땅과 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유기적인 도·농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생태 환경 운동임을 인식하고 1987년부터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해왔다.

부산YWCA가 전개한 생활협동운동을 내용은 크게 이 운동에 대한 정책연구,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계약재배, 생산지 방문을 통한 도·농 공동체 형성 등 네 부문으로 요약된다.

1) 생활협동운동의 정책 연구

부산YWCA는 1987년 11월 개최한 이사, 위원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바른 먹을거리운동을 위한 실무자교육, 농약오염 추방을 위한

회원대회, 위원 연구모임, 회원과 클럽지도자 교육 등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교육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부터 생협운동이 부산YWCA의 주력사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이 운동이 일부계층의 건강에 대한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YWCA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 생산자와 소비자교육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 교회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1993년에는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수입농산물 구매실태와 소비자 의식을 조사하고 심포지엄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역에 확산되게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당시의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면 최근에는 환경호르몬, GMO 등 식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태적 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한 살림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3)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계약재배

부산YWCA는 지역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3월 감자 직거래장을 시작으로 (무,저농약 농산물직거래 부산YWCA 큰장날)등 136회의 직거래장을 개설하여 25만여 명의 지역 소비자에게 유기농산물과 환경생활재를 공급하면서 양심적인 생산자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소비자가 만나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YWCA가 모두 직거래해 줄 수 없는 생산지의 생산물은 부산지역의 교회와 타 생협기관과 단체에 소개하여 함께 그들의 생산물을 직거래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정량을 미리 계획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996년 생협공동체회원을 조직하여 현재 까지 6,000여 가정에 생활재를 공급하였고 부산YWCA회관에 생협 매장을 개설하여 약 250여종의 환경 생활재를 상설 공급하고 있다.

이후 부산YWCA는 90년대 후반에 들어 이 운동의 조직적 확산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수 차례의 실무자 연구모임과 이사회 의 논의를 거쳐 2002년 3월 29일 30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현재 9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4) 도·농 공동체 형성

생산자와 생산지 확산을 위해 1992년 경남지역 농민 230명을 초청하여 1박2일의 일정으로 농민교육을 개최하여 농민들이 유기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민, 회원, 이사 위원, 실무자, 생협회원이 100여 차례 생산지를 방문하여 현장견학과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가 기초된 도·농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신



지난 8월 상주의 포도농장에서의 풀뽑기 체험을 하는 생협 조합원들

퇴관계는 그동안 부산YWCA가 운동을 펼치며 경험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으며 이 운동을 통해 획득한 가장 소중한 가치로 평가된다.

또한 도·농간의 유기적 관계 뿐 아니라 생산지에서도 유기농산물의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해서 개별 농업보다는 작목반 단위의 공동체로 조직하여 협동농업 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환경의 오염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농민들간의 협동과 자치를 통해 더욱 우수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므로 점차 대다수 생산지에서 공동체의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 경작지의 확대를 이룰 수 있으므로 생태환경이 확대되었다.

예) 생산지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생산자 - 김경주(주,잡곡 생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증 -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1989년 7월, 차황농협을 통해 유기농 생산지를 답사하던 부산YWCA와 만남이 이루어졌고 당시 7,000-15,000평 정도의 관행농업을 하고 있었으나 부산YWCA의 권유로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듬해인 1990년 예년의 50% 정도의 수확을 거두자 생산단가를 보장하며 부산YWCA에서 전량구매 해주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부산YWCA와의 직거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기농으로 전환한 이후 초기4-5년 동안에는 홀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다수확 위주의 농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돼지 사육, 누에농사, 심지어 식당운영 등으로 극복하며 유기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부터 그동안 비난하고 반대해왔던 이웃의 농민들이 비록 다수확은 되지 않지만 모든 생산물의 전량 소비와 그에 따른 농가소득이 보장되자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차황면 일대의 19개 마을 320농가(전체90%)가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수매를 하지 않아도 생협단체와 기업의 직거래로 소비되며 농가소득 또한 보장되어 농가부채 없는 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남양분유와 매일유업 등의 이유식의 유기농 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3만2천 평에 이르는 땅을 지정하여 계약재배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생태환경 또한 타 지역과 확연하게 구별 될 정도로 깨끗하여 부산YWCA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회원 등 대상별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모두 이 지역에서 실시하며 생협 조합원교육 및 생산지 견학 등 일 년 연중 꾸준하게 교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청군 차황면 황매 초등학교에서 지역어린이들에게 부산YWCA 여름 캠프를 실시하여 농촌의 아이들 100여명에게도 부산YWCA와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주·잡곡이외에 토종마늘, 전통식 메주, 사과, 배, 양파의 생산도 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며 유기농 농가를 마을별, 작목별로 조직하여 마을전체의 책임 하에 서로 협동하고 자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마을별 20-30개 농가가 협동 생산하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의 생산물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2004년 가을부터는 각 마을별로 정부 인증을 자체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중 60여 농가가 참여해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해 1억 5,000여만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차황 출신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매년1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9개 마을별로 현재 직거래하고 있는 생협단체와 기업과의 '생태마을 지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농간의 생산물과 환경생활재를 서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한 마을 당 20-30개의 농가와 도시 소비자단체와 진정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진정한 도·농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5) YWCA 환경운동에의 기여

18년 동안의 꾸준한 운동의 결과 생활협동운동이 제33회, 34회 전국대회에서 주력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 회원YWCA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생협운동의 전국확산을 위한 자료집 발간을 주도하여 생협운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회원YWCA지침서로 사용하였으며 200년 8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NGO 심포지엄과 같은 해 9월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 포럼 등 국제 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부산YWCA 생협운동을 소개함으로써 한국YWCA 운동사례를 여러나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3. 앞으로의 전망

부산YWCA의 이러한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생활협동운동의 시작은 '한사람'을 변화시키고 훈련하고 육성하여 지도자로 만들어 차황면 전체를 환경생태마을로 변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한국YWCA가 지향하는 환경운동, 창조질서 회복운동, 소비자 생명운동, 도·농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더불어 잘 살자는 운동의 한 줄기가 된 것이다.

생활협동운동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잘 먹자는 운동이 아니며 땅과 물, 공기를 살리는 환경운동으로서 뿐 아니라 나아가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농업의 실천의 장이며 환경과 식량을 지켜내는 나라사랑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회원 스스로 개별가정의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웃과 협동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 문제, 학교급식 운동을 통한 우리농산물 지키기와 교육의 문제 등에 이르는 사회문제에도 스스로 참가하여 지켜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운동이 될 것이다. ㉠